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同牢宴 所用器用과 床花考
— 1866年 高宗 明成后, 1906年 純宗 純宗妃 嘉禮同牢宴 —

金尚寶 · 李盛雨*

대전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1991년 6월 17일 접수)

A Study on Wedding Ceremony Tablewares and Table Flowers
in Gare Dogam Euigwae (1866, 1906)

Sang Bo Kim and Sung Woo Lee*

Daejeon Medical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yang University

(Received June 17, 1991)

Abstract

To analyze tablewares and table flowers in wedding ceremonies of king and royal prince (1866, 1906) of Chosan dynasty, the author studied the historic book-Gare Dogam Euigwae, in which wedding feast dishes for king and prince in Chosun Dynasty were describ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ablewares used for wedding ceremony in the year of 1866, 1096 were same as that of from the year 1744 till 1819. 2. For wedding feast dishes for the prince, black lacquered table was used, for the crown prince's wedding feast red lacquered table and for the Emperor's wedding feast yellow lacquered table were used. 3. Table flowers used for wedding ceremony in the year of 1866, 1906 were same as that of from the year 1744 till 1819.

I. 서 론

筆者 등은 「嘉禮都監儀軌」를 통하여, 1744년과 1819년의 嘉禮同牢宴所用 器用을 分析 究明하여 보고한¹⁾ 바 있다.

本報는 1866年 高宗 明成后, 1906年 純宗 純宗妃의 嘉禮時 所用 器用을 「嘉禮都監儀軌」를 통하여 分析 究明함으로서, 1744년부터 1906년까지의 가례시 器用 文化를 밝히고자 한다.

II. 器用에 대한 考察

1. 床類

가례 동뢰연에 소용되는 床류가 同牢宴床 · 右挾床 ·

左挾床 · 面挾床에 高足床, 大膳 · 小膳에 대선상 · 소선상, 長空卓에 長床, 그밖에 果盤 · 中圓盤 · 饋案床 · 大酒亭 · 香案 · 樽花床이었음을 前報²⁾를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이들 同牢宴 所用 床類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純貞孝皇后(純宗妃)를 모신 金命吉 상궁에 의하면 “구슬달린 술이 앞뒤로 늘어선 平天冠에 다흥 龍袍를 입으신 33세의 太子와 어여머리 龍簪*(용잠)에 남공단에 꿩수가 눈부신 大禮服으로 성장하신 13세**이시던 마마 사이를 높은 상궁이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며 굽은 靑실 紅실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마마는 太子와 나란히 앉으셔서 同牢宴床을 받으셨다. 앉은 키보다 높은 상위의 음식에는 水波蓮에 밀 童子가 현란하게 꽂혀 있었다”³⁾라고 말하고 있다. 즉 분명한 것은 同牢宴床이 앉은 키보다 높다는 것이다.

1)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同牢宴所用器用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1, 1991.

2) 上同

3) 金命吉, 純貞孝皇后를 모시고, p. 242.

*簪: 비녀 “잠”, 용잠: 용의 무늬를 머리에 새긴 큼직한 비녀.

**純宗妃의 가례시의 나이가 13세인지 14세인지 분명치 않다.

表 1. 1866年 高宗 明成后의 嘉禮時 所用 器用(王가례)

| 상 차 림 | | 床 | | 器 皿 | | |
|---------|---------|------------|----------------------|-------------------------|------|----------|
| 同牢宴 | 同牢宴床 | | | 鑑器皿 | 132坐 | 銀鳳瓶 |
| | 左挾床 | | | | | 銀明瓶 |
| | 右挾床 | | | | | 銀別兒瓶鎖貝 |
| | 四方盤 | 朱紅大四方盤 | 2立 | | | 銀禿瓶 |
| | 中圓盤 | 中圓盤 | 2立 | | | 銀鍍金卵盃臺具 |
| | 果盤 | 果盤 | 4立 | | | 銀鍍金草葉盃臺具 |
| | 初味 | 平盤 | 2立 | | | 銀玲瓏匙 |
| | 二味 | 平盤 | 2立 | | | 銀召兒 |
| | 三味 | 平盤 | 2立 | | | 銀尖 |
| | 三殿朝見禮所用 | 果盤 假脩脯盤 | 同牢宴果盤 小小四方盤 床卓 | | | |
| 三殿朝見禮所用 | | | 3立 | 銀蓋臺具 銀駢, 香醞 紅綃四幅袱 | 3件 | |
| | | | 3盤 | | | |
| | | | | | | |

表 1과 2는 1866년과 1906년의 가례시 所用 器用을 나타낸 것이다. 表 1과 2 모두 同牢宴 所用床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表 1의 사방반, 중원반, 평판 및 表 2의 대선, 소선, 사방반, 중원반, 과반, 평반이 1819년의 소용床과 같은 점 또한 上記의 金命吉氏의 말로 미루어 1866년과 1906년의 동뢰연 소용床은 前報⁴⁾의 1819년의 동뢰연 소용床과 같으며, 이러한 사실은 表 1과 2의 朝見禮時에 所用된 果盤과 붉은색의 4폭 비단 보자기를 덮은 床卓에小小四方盤을 올려놓고 그 곳에 窫栗과 假脩脯를 담았던 것은 1819년의 朝見禮 所用 器用과 일치하는 것으로 뒷받침 된다 하겠다.

조선조의 엄격한 신분제도는 생활용구도 신분의 차이에 의한 격차가 심했으며, 따라서 가례시에 사용되는 床의 漆도 黃漆, 黑漆, 朱漆을⁵⁾ 하였고, 黃漆은 皇帝, 朱漆은 王, 黑漆은 王世子用의 床에⁶⁾ 칠할 정도로 엄격하였다. 1866년 王가례인 表 1에 제시된 床은 朱漆의 床으로 생각되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방반이 朱紅大四方盤인 점에서 미루어 짐작케 한다. 1906년 皇太子 가례인 表 2에 제시된 床은 황태자 소용 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방반의 칠이 朱紅인 것은 王자보다는 황태자가 서열이 위인 점으로 설명이 된다 하겠다. 表 2에 제시된 器用 중에서 黃漆의 果盤과 황색의 비단 4폭 보자기의 사용은 시아버지이신 高宗 皇帝께 올리는 器用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1866년에는 1749년의 「御制國婚定例」⁷⁾에서 제정된 王가례시의 소용상과 일치하며 1906년에는 1819년 가례시의 소용상과 일치된다. 그러나 1749년 國婚定例를 기점으로 궁중 가례 상임

表 2. 1906 純宗 純宗妃의 嘉禮時所用 器用(皇太子가례)

| 상 차 림 | | 床 | | 器 皿 | |
|----------|----------|---------|----|--------|-----|
| 同牢宴 | 大膳床 | 大膳 | 2床 | 鑑貼匙 | 2立 |
| | 小膳床 | 小膳 | 2床 | 唐朱紅漆大盤 | 2竹 |
| | 同牢宴床 | | | 唐朱紅漆小盤 | 1竹 |
| | 左挾床 | | | 鑑器皿 | 90坐 |
| | 右挾床 | | | | |
| | 四方盤 | 唐朱紅漆四方盤 | 2立 | | |
| | 中圓盤 | 中圓盤 | 2立 | 鑑貼匙 | 7竹 |
| | 果盤 | 果盤 | 4立 | 鑑善兒 | 2竹 |
| | 初味 | 平盤 | 2立 | 香醞 | |
| | 二味 | 平盤 | 2立 | | |
| 皇帝朝見禮所用 | 三味 | 平盤 | 2立 | | |
| | 棗栗盤 | 小小四方盤 | 1立 | | |
| | | 床卓 | | 黃綃四幅袱 | 1件 |
| | 果盤 | 黃漆果盤 | 1立 | 銀蓋臺具 | |
| | 皇太子妃拜位所用 | 唐朱紅漆果盤 | 1立 | 銀瓶 | |
| 景孝殿朝見禮所用 | 果盤 | 唐朱紅漆果盤 | 1立 | 香醞 | |
| | 假脩脯盤 | 小小四方盤 | 1立 | | |
| | | 床卓 | | 紅綃四幅袱 | 1件 |
| | 果盤 | 唐朱紅漆果盤 | 1立 | | |
| 監饋時 | 皇帝果盤 | 黃漆果盤 | 1立 | | |
| | 皇太子妃 | 唐朱紅漆果盤 | 1立 | | |
| | 果盤 | 唐朱紅漆果盤 | 1立 | | |
| | 景孝殿果盤 | 唐朱紅漆果盤 | 1立 | | |

4) 金尚寶, 李盛雨, 1991.

5) 李盛雨, 朝鮮王朝嘉禮食儀軌, 미친문화재단, 1989, pp. 177, 97-214.

6) 金尚寶, 李盛雨, 1991.

7) 金尚寶, 李盛雨, 御制國婚定例에 대한 分析的 研究, 韓國食文化會誌, Vol. 5, No. 3, 1990.

物量 每束所入 中花 所用 가례시 1906年과 1866年과 3. 헌 3.

表 3. 계속

| 1866 | | 1906 | |
|-----------------------|--------------------|--|--|
| 梅花2朵每朵所入 | 梅花2朵每朵所入 | 大鳳16朵 <small>대신</small> 大紙花 12朵每朵所入 | 小鳳30朵 <small>대신</small> 小紙花 20朵每朵所入 |
| 炭 2斗 | 炭 2斗 | 炭 1升 | 炭 5合 |
| 合紅絲絲 3甲所 | 合紅絲絲 3甲所 | 3艮衣 | 3艮衣 |
| 黃紙 | 楮注紙 ^(*) | 1張 | 楮注紙 |
| 真粉 ^(*) | 黃紙 | 半張 | 黃紙 |
| 三碌 ^(*) | 1錢 | 5分 | 半張 |
| 中綱銅絲 | 3分 | 三碌 | 2分 |
| 幅巾次紅苧布 ^(*) | 各兩尺 | 各兩尺 | 各兩尺 |
| 雪綿子 ^(*) | 方4寸1片 | 幅巾次紅苧布 | 方3寸1片 |
| 草碌真絲 ^(*) | 3分 | 雪綿子 | 2分 |
| 細銅絲 ^(*) | 1分 | 草碌真絲 | 5里 |
| 細銅絲 ^(*) | 1尺 | 細銅絲 | 4尺 |
| 丁香 ^(*) | 3錢 | 細銅絲 | 兩尺5寸 |
| 紅紙 | 半張 | 有頭丁香 | 4箇 |
| 鵝青紙 ^(*) | 半張 | 紅紙 | 半張 |
| 白紙 | 1張 | 鵝青紙 | 半張 |
| 花峯太 ^(*) | 1夕 | 白紙 | 1張 |
| 丹木 ^(*) | 1兩 | 花峯太 | 1夕 |
| | | 丹木 | 1兩 |
| | | 根板條里 ^(*) | 4寸 |
| | | 紅絲 | 1分 |
| | | 黃絲 | 2分 |
| | | 草碌絲 | 2分 |
| | | 藍絲 | 2分 |
| | | 鵝青絲 | 1分 |
| | | 粉紅絲 | 1分 |
| | | 紅苧布 | 半骨3寸 |
| | | 丁粉 ^(*) | 3粉 |
| | | 八角 ^(*) | 4箇 |

實果草蟲12朵
每朵所入白鶴30朵
每朵所入羅花草蟲16朵
每朵所入白尗水波連20
朵每朵所入

炭每朵所入

1升

炭

5合

炭

1升

림의 규모가 커졌으므로 규모의 多小를 제외하고는 이들 상은 1744年의 가례시의 所用상과도 일치한다.

2. 器皿類

表 1과 2의 가례시 소용 기명류는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前報⁸⁾의 소용 기명과 대체로 일정하므로 床類와 마찬가지로 1744年 이후 1906년까지 별다른 변화를 볼 수 없었다.

3. 床花類

表 3은 1866년과 1906년 가례시 所用 床花에서 每朵所立물량을 기록한 것이다. 1866년은 樽花2朵만 所用되었으나 1906년은 樽花2朵만 所用되었으나 1906년은 樽花2朵, 大紙花12朵, 小紙花20朵, 中水波蓮8朵, 水波蓮20朵, 羅花草蟲16朵, 實果草蟲12朵가 소용되었다. 이들 床花는 1744年 1749年 1819年^{9,10)}의 所用床花와 같다. 表 3의 每朵所入物量에서 각 床花를 재료별로 뽑으면 다음과 같다.

1) 樽花

천은지, 초록지, 다흥지, 황회목, 백저포, 옥색지; 花 수동황, 괴화, 당주홍, 심황, 동록, 지초, 연지수, 二青, 三青, 탄; 염료

백반; 매염료

산저모, 황밀, 중동사, 해장죽, 중죽, 하엽, 합홍면사, 초주지; 줄기, 잎, 기타

송지, 백밀, 야교; 접착제

첨은 첨금; 은박과 금박

2) 大紙花

천은지, 황지, 흥저포, 설면자, 저주지; 花 수동황, 당주홍, 동록, 지초, 연지수, 二青, 三青, 탄 진분, 삼록; 염료

산저모, 초주지, 황밀, 해장죽, 중죽, 하엽, 초록진사, 중세동사; 줄기, 잎, 기타

송지, 야교; 접착제

첨은 첨금; 은박과 금박

3) 小紙花

8) 金尚寶, 李盛雨, 1991.

① 天銀: 鉛이 없는 순은으로서 여러번 정련하여서 다시는 줄어들거나 오그라들지 않는 것.

② 同黃: 채료의 일종.

③ 黃灰木: 黃灰로 물들인 무명.

④ 櫻花: 흐나무의 꽃, 자혈, 이질, 치질, 회충 등의 약재로 씀.

⑤ 白礦(백반): 명반(明礦)을 구어서 만든 덩어리, 매염료로 사용하는 것.

⑥ 山猪毛: 맷돼지털.

⑦ 草注紙: 초(草) 잡는 두루마리.

⑧ 黃蜜: 밀

⑨ 松脂: 송진

⑩ 白蜜: 꿩의 일종

⑪ 唐朱紅: 중국에서 산출되는 황화수은인 붉은 빛의 안료.

⑫ 深黃: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초식물, 올금, 올금: 전조한 균경의 분말은 황색염료로 쓰임.

⑬ 銅綠: 구리거죽에 드는 푸른 빛의 물질.

⑭ 中銅絲: 중간치의 구리철사

⑮ 芝草: 지치과에 속하는 다년초 황상 등의 약재로 쓰임.

⑯ 海長竹: 경상도에 분포된 해변에 방풍림으로 심는 대나무의 일종. 줄기는 竹細工材

⑰ 中竹: 중정도의 대나무

⑱ 膜脂水: 紫色과 赤色을 혼합한 물감.

⑲ 阿膠(아교): 짐승의 가죽, 뼈, 창자, 힘줄 등을 고아 그 애체를 말린 황갈색의 따뜻한 물질.

⑳ 貼銀: 의복 등에 박는 은박

㉑ 貼金: 의복 등에 박는 금박

㉒ 二青: 真彩의 일종

㉓ 三青: 真彩의 일종, 하늘빛과 같이 푸른빛.

㉔ 荷葉: 연잎.

㉕ 3甲所: 세 걸바.

㉖ 楷注紙: 卷紙, 두루마리.

㉗ 真粉: 순백색의 건축涂料.

㉘ 三碌: 백록색의 도료.

㉙ 幅巾(복전): 頭巾의 하나.

㉚ 雪綿子: 눈같이 흰 솜.

㉛ 真絲: 명주실

㉜ 細銅絲: 가는 구리철사

㉝ 丁香: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말린 약재

㉞ 鴉青紙(아청지): 검푸른 빛이 나는 종이

㉟ 花峯太: 두터운 꽃봉우리

㉟ 丹木: 약재의 苏木을 말함.

㉟ 檻板條里: 원목을 캐서 만든 피나부 판자

㉟ 丁粉: 粉色 안료의 일종

㉟ 八角: 웃순나무, 향료에 쓰임.

㉟ 金尚寶, 李盛雨, 1991.

10) 金尚寶, 李盛雨, 1990.

천은지, 저주지, 황지, 흥저포, 설면자; 花
수동황, 당주홍, 동록, 지초, 연지수, 二青, 三青, 탄
진분 삼록; 염료
산저모, 초주지, 황밀, 중동사, 해장죽, 중죽, 하염,
초록진사, 세동사; 줄기, 잎, 기타
송지, 아교; 접착제
첨은, 첨금; 은박과 금박
4) 中水波蓮
천은지, 초록지, 황화목, 백저포, 옥색지, 황지, 설면자,
홍지, 花峯太; 花 및 꽃봉우리
괴화, 당주홍, 동록, 지초, 탄; 염료
백반; 매염료
황밀, 해장죽, 중죽, 아청지, 백지, 단목; 줄기, 잎,
밀동자(황밀)
송지; 접착제
첨은 첨금; 은박, 금박
정향; 향료
5) 水波蓮
천은지, 초록지, 황화목, 백저포, 옥색지, 황지, 설면자,
홍지, 花峯太; 花 및 꽃봉우리
당주홍, 동록, 지초, 탄; 염료
백반; 매염료
산저모, 황밀, 해장죽, 중죽, 세동사, 아청지, 백지,
단목; 줄기, 잎, 밀동자(황밀)
송지; 접착제
첨은 첨금; 은박, 금박
6) 羅花草蟲
홍저포, 홍사, 황사, 초록사, 남사, 아청사, 분홍사;
花
당주홍, 동록, 二青, 탄, 정분; 염료
황밀, 해장죽, 백지, 가판조리; 줄기, 잎, 기타
아교; 접착제
첨은 첨금; 은박, 금박
有頭丁香; 향료
7) 實果草蟲
홍저포; 花
당주홍, 동록, 二青, 탄, 정분; 염료
황밀, 해장죽, 세동사, 백지, 가판조리; 줄기, 잎, 기
타
아교; 접착제
첨은; 은박
팔각; 향료
이상의 분류는 각 물목의 특성으로 한 것으로 정확한
분류는 물론 아니다. 현재 정확한 床花 제조방법이 밝

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花, 줄기, 잎 등에 해당하는
物目을 보다 분명히 분류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앞으로
더욱 究明 요구된다. 앞서서 金命吉씨의 글에서 “수파
련이 밀동자가 현란하게 꽂혀 있었다”는 것에 의하면
적어도 소수파련과 수파련의 黃蜜은 밀童子 제조에
쓰였음이 명백하다. 1906年の 床花는 摻花用으로 摻花,
大紙花, 小紙花, 羅花草蟲, 實果草蟲, 中水波蓮, 水波蓮
이 쓰였으며,¹¹⁾ 이중 中水波蓮과 水波蓮의 일부는 同
牢宴 床의 음식에 꽂은 床花用¹²⁾이었다.

III. 맷는말

1866年 高宗 明成后, 1906年 純宗 純宗妃의 가례시
소용 器用을 「嘉禮都監儀軌」를 통하여 分析 究明함으
로서 前報를 통하여 보고한 1744年부터 1819年의 同
牢宴 所用 器用과 비교 검토하여, 1744年부터 1906年
까지의 가례시 器用 文化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1866年, 1906年의 嘉禮時 所用 器用은 규모의 多
小를 제외하고는 1744年, 1749年, 1819年의 所用 器用
과 같다.

2. 가례시 사용된 床의 色에 따른 용도는 皇帝께는
黃色, 王·皇太子께는 朱漆, 王世子께는 黑漆의 상을
올렸으며, 이들 상은 皇帝의 黃色床에는 黃색비단보자
기를, 王·皇太子, 王世子에게는 黃은색비단보자기를
덮어 사용하였다.

3. 1866年, 1906年의 가례시 소용 床花는 1744年,
1749年, 1819年의 所用 床花와 같다.

4. 床花의 재료는 貼金, 貼銀 등의 금박과 은박, 松脂
아교 등의 접착제, 海長竹, 中銅絲, 荷葉 등의 줄기와
잎, 水同黃 唐朱紅, 銅碌 등의 염료, 백반 등의 매염료
天銀紙 多紅紙 등의 花用, 丁香, 八角 등의 향료, 黃蜜
등의 蜜童子 등으로 분류된다.

참고문헌

1. 李盛雨, 朝鮮王朝嘉禮食儀軌, 미원문화재단, 1789.
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만기요람I, 민중서관, 1971.
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만기요람색인, 민중서관, 1971.
4. 金在得, 朝鮮王朝篇古文獻用語解例, 培英社, 1983.
5. 張三植, 大漢 辭典, 進賢書館, 1982.
6.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同牢宴所用器
用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1, 1991.
7. 金命吉, 純貞孝皇后를 모시고
8. 金尚寶, 李盛雨, 御制國婚定例에 대한 分析物 研究, 韓
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3, 1990.

11) 金尚寶, 李盛雨, 1991.

12) 金命吉, p. 242.